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빈 들에 마른 풀같이(찬172/새183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광영 장로 2부/곽태일 장로 3부/김도석 장로 4부/김지인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참 좋은신 주님(김기영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2부/길가온(Vince Kil) 3부/염하윤(Elle Yum)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누가복음(Luke) 8:40-56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6:24-40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Come & See 미라클(6)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 만난 예수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21) "I AM" 생명의 떡이니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오직 예수 뿐이네, 주 품에 품소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마귀 통신 [카더라 통신]

Devil's Communication [Kadeora News]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속옷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반대파 사람들이 여론을 하고 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가 만든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총리는 '나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방어할 사이 없이 무너진다'며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믿기 전에 확인하고 공유하기 전에 검증하라."

이탈리아는 EU 최초로 AI 조작 콘텐츠 배포시 징역까지 처하는 강력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법과 윤리가 제재하지 않으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요즘 기술을 사용한 처벌할 수 없는 수많은 범죄들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르자 총리가 이 법으로 무책임한 AI 조작 콘텐츠 배포자를 조르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공동체를 해하는 가장 나쁜 악은 무책임한 말과 의도적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전용특허 통신사 [카더라 통신]에 큰 상처를 받은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귀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일에 이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담을 넘어 오면서 세상에서도 엄벌에 처하는 조작 콘텐츠들이 무방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니면 말고' 넘어가는 무책임한 말에 사람의 마음은 잔인하게 난도질 당하고, 평생 아픔을 품고 정신적 공황을 겪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는 이런 아픔의 눈물을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멀쩡한 것처럼 삽니다. 신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already, not yet] 시대라 부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지만, 동시에 아직은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천국 속에 지옥을 견디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경험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눈물을 닦아 주실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고정'입니다. 그러나, [카더라 통신]은 그날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통신에 귀 그만 기울이고, 하늘나라 통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I saw news about how opponents of Italian Prime Minister Giorgia Meloni were stirring up public opinion, claiming she was unfit for public office after a photo of her sitting on a bed in her underwear was released. As it turns out, the photo was created by AI. In response, the Italian Prime Minister left a strong message: "I have the power to defend myself, but if this happens to ordinary people, they will collapse without any means of defense. Verify before you believe and validate before you share."

Italy has become the first in the EU to approve a powerful bill that imposes prison sentences for the distribution of AI-manipulated content. No matter how good technology is, if laws and ethics do not restrain it, it becomes a technology that harms society. We do not know how much damage is being caused by numerous crimes using today's technology that cannot be punished. Prime Minister Giorgia Meloni is using this law to "tighten the noose" (?) on irresponsible distributors of AI-manipulated content.

The saying that freedom comes with responsibility resonates in my heart once again. The worst evil harming our community is irresponsible words and intentional lies. Numerous churches—the body of the Lord—have been deeply hurt by the Devil's Exclusive News Agency [Kadeora News]. Even now, the devil is using this news agency to tear down the community of faith. The problem is that while manipulated content is strictly punished in the world, it remains defenseless as it crosses the walls of the church. Even if it is proven false, people's hearts are cruelly mangled by irresponsible 'if not, then whatever' remarks, carrying pain for a lifetime and suffering from mental panic.

What is certain is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a place that wipes away the tears of those who have shed tears of such pain. Therefore, waiting for that day, I move forward today as if I am fine. Theologians call the current era the [already, not yet] era.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arrived, and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lives enjoying the joy and peace of heaven; however, at the same time, we remain exposed to Satan's attacks, living through hell within heaven. The Lord tells us to fix our eyes on Him and endure in this era where the experiences of heaven and hell coexist. Believing that there will be a day when He wipes away our tears, today we 'fix' our eyes. However, a righteous judgment awaits [Kadeora News] on that day. I pray that we all stop listening to such communication and live by listen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e communic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주일설교시리즈

COME & SEE

미라클 (6)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 만난 예수

(눅 8:40-56)

설교자: 김한요 목사

1. 내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2. 회당장 아이로의 딸의 나이와 혈루증 여인이 고생한 연수가 공교롭게 같은 숫자입니다. 나는 어느 숫자에 가깝습니까?(42-43절)

3. 우리 인생의 높낮이가 있을 수 있지만, The greatest equalizer 앞에서 평등해 집니다. 12세 소녀와 12년간 아픈 여인은 어떻게 평등해 집니까?(참고 막 5:26, 레 15:19)

4. 예수님 뒤로 와서 옷 가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여인을 공개적으로 찾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혈루증 여인의 ()을 () 주시는 것 뿐 아니라, 그녀에 대한 () 인식과 ()으로서 매력, 그녀 안에서 무너져 내렸을 (),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5.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다음 성경구절을 찾아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막 5:27-28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

6. 예수님이 회당장 아이로 집에 도착이 지연된 것은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을 극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이 요소들을 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 1) 장소적 _____
 - 2) _____
 - 3) 사람들의 _____



■ 적용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주 품에 품으소서

감사의 글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참가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선교대회에서 은혜를 누렸지만, 충분히 교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이대로 헤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비전트립을 준비해 주셔서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각 나라의 사역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길예평 선교사(미국)**



이번 대회는 저희의 영적 여정 가운데 '그때 참 좋았더라' 라고 기억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어려운 순간마다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며, 베델교회의 저력과 정체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연합이 앞으로 한인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 가운데 놀라운 영적 시너지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도 소망합니다. 베델교회가 전 세계 한인교회와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목사(호주 브리즈번 한인장로교회)**

너무 귀한 대접과 섬김을 받아서, 그동안 사역하며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베델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힘을 얻었고, 앞으로 남은 사역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 **박덕용 목사(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사역지에선 눈물을 흘린 일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와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박용관 목사(프랑스 파리 삼일장로교회)**

아프리카 변방 선교 가운데 있는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건네주신 한 그릇의 냉수와 한 조각의 빵 같은 사랑과 위로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다시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 **서대경 목사(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베트남 하노이의 날씨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공기도 너무 신선하고,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과 마음을 모아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에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 **성결, 양선 선교사(베트남)**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정말 매시간, 매예배,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곳에서 마치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 **올지바트 선교사(몽골)**

선교지에서 늘 반복되는 바쁘고 긴장된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아름답고 좋은 장소에서 안식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더욱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철/이순미 선교사(온두라스)**

정말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것 같은 귀한 시간이었고,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의 사역도 더욱 열심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늘 '아, 한국의 산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에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어 감

사한 마음입니다. - **이수정 목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인교회)**

사역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열방에 흠어져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 **이승섭 목사(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마치 왕과 왕비 같은 귀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오신 목회자님들과 만나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시 열방을 향해 열려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쉼과 그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주고,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의 빛을 마음 가득 품고 돌아갑니다. 평생토록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 **이재기 선교사(독일 뮌헨 한독교회)**

늘 섬기는 자리에서 사역해 오다가 이렇게 따뜻한 섬김을 받게 되니 마음이 참 몽클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섬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할지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호 목사(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정말 감탄, 감사,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델교회의 귀한 헌신 덕분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저 같은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이 쉼과 위로를 누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귀한 분들과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혜진 목사(아틀란타 베델교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베델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섬김 덕분에 정말 잘 쉬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 **장과장 선교사(미국)**

하나님께서 흠어 놓으셨던 저희를 베델교회를 통해 다시 모아 주신 것 같아 더욱 감사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환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홀함 없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섬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과, 열방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역사가 더욱 기대됩니다. - 조귀녀 사모(캄보디아 아 프놈펜 선린교회)

저희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에게는 귀하고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베델교회가 50주년을 맞아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돌아가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힘써 사역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 최주호 목사(호주 멜번 순복음교회)

아름다운 곳에서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 덕분에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조지아에서의 만남에 이어, 이번에는 본국에서 다시 귀한 모임을 갖게 되니 더욱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 또한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 황현주/황순현 선교사(캄보디아)

선교 간증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깊은 은혜의 복된시간!!

반세기를 맞은 베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와 같았던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델교회의 지난 시간 속에 아로새겨진 수많은 신앙의 서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의 발자취였으며, 오늘의 우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유산 위에서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번 집회는 단순히 베델교회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희년의 기쁨과 열방을 향한 믿음의 출정식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이 천국을 향한 거룩한 리허설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점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집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신 성숙한 믿음의 성도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선교대회가 더욱 빛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헌신 위에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유산이 더욱 풍성히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베델교회의 다음 반세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감과 통찰력으로 날마다 영적인 순전함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과 확장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 받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현진B 권사

셀 사역
선교사와의 만남

셀과 함께 선교사님과의 만남

2년 반 전 처음 베델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던 제가 예배와 말씀, 셀기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어느새 교회는 제 삶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감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 안에 성장과 변화를 느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중에 최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디아스포라' 선교 행사로 저희 예수마을셀에서는 캄보디아에서 10년째 사역 중이신 황선교사님 두 분과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혹독한 기후, 숨이 막힐 듯한 더위와 습기, 몸을 물어 고통을 주는 작은 개미들, 그 모든 환경은 제가 살아가는 캘리포니아의 안락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선교사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깊이 감동시킨 것은 선교를 시작하신 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큰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아들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서원이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향하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황선교사님은 낯선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가족과 떨어져 자녀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그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우선으로 두는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나는 과연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믿음이

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선교사님의 삶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권은영(예수마을셀)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새벽길에 품은 소망

행사가 많았던 4월,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시작으로 참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사랑목장과 함께한 엘리사 새벽기도는 제게 매우 깊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해지는 영상 메시지와 새벽마다 들려오는 조태현 목사님의 QT 나눔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했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던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말씀 앞에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커져 갔습니다. 말씀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아침 식사를 사랑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속에서 부족한 제가 공동체 안에서 채워져 가는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 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목장 식구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영적인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이번 엘리사 새벽기도의 또 다른 큰 은혜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베델교회의 사인은 제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실재를 눈으로 보는 듯한 감동이었습니니다. 이민 1세대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들었고,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모습을 떠올리며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5) 말씀처럼, 일상의 작은 순종과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쌓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박승원 권사(사랑 목장)



예살채플

청2 수양회

다시 뿌리내리기



수양회에서 처음으로 조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준비해야 했고, 처음부터 자원해서 맡았다기 보다는 셀목자님의 부탁으로 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조장들과 함께 눈물과 기도로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제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주어진 자리를 가버

운 마음으로 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말씀과 꾸준한 기도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수양회의 주제였던 '믿음의 뿌리'를 묵상하면서, 제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제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 죄를 직면하지 않은 채, '주님께서 언젠가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제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 비로소 우리 조원들과 수양회에 온 다른 청년들을 섬기는 일이 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조장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가운데 제 성숙을 가로막고 세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것들을 마주하고 끊어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기쁨보다 좌절과 슬픔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뿌리내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뽑아내신 자리마다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심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제 삶을 채워 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예원(청2)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민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야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정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중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의료선교 대회(GMMA)

GMMA(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는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고, 2006년 미주 한인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교파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적 삶"이라는 비전 아래 의료와 선교, 다음세대 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GMMA는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글로벌 의료선교, 지역사회 아웃리치, 학생 및 전문인 사역, 멘토링, 기도운동, 선교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다음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동부·중부·서부를 비롯해 캐나다, 한국 등지에 70개 이상의 대학 캠퍼가 세워져 있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이 복음을 통해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독 선교단체 및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세계선교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학생, 전문가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육체적 치료를 넘어 마음과 영혼의 회복까지 추구하며, 예배와 말씀, 기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역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 GMMA 컨퍼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봉사와 섬김으로 함께 해주며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기간: 6월 25일(Mental Health Seminar), 6월 26일(금)-27일(토) (컨퍼런스)
- ▶ 주강사: 프랭클린 그레함, Dr. Ming Wang(할리우드 영화 "Sight"의 실제 주인공) 외 3명
- ▶ 장소: 베델교회
- ▶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 참가자 등록: GMMA7.org(베델교인 50% 특별할인 코드 : BETHEL2026)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6월)	5/24: ①부-김병수	②부-김건성	③부-김성귀	④부-전혜린
	5/31: ①부-김문식	②부-김성균	③부-김도형	④부-도함준
	6/7: ①부-김문경	②부-김백열	③부-김근수	④부-류다빈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6월) | 5/23: 손세진 5/30: 성주영 6/6: 손수국 6/13: 현승원

강단꽃(5,6월) | 5/17: 이인철, 임명신 5/24: 배사라, 송미선 5/31: 선상균, 왕동원, 이인철 6/7: 김중현, 박운유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진(한외과), 간호사-홍정이 다음주 | 의사-최형국(안과), 간호사-최소진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가정의 달 아버지 선물 그 끝없는 헌신과 기도로 가정을 섬겨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75세 어르신들에게 가정당 드리는 김 선물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드야드 부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양육반, 제자반, 말씀플러스, 전도폭발, BAM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31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B2N 2027 연합기도회 초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일시: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장소: 튀르키예 안탈리아/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비: 1인당 \$1,000 + 국제선 항공권 or 여행패키지 등록비 포함 항목: B2N 일정 간 호텔 숙박비, 공항-호텔 이동, 호텔-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이동,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입장료 (불포함: 국제선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필요시), 기타 개인 경비 등) 등록 마감: 5월 31일(주일)까지 문의: 코드야드 부스, 이충경 목사 (949)537-6968, 황세헌 장로 (949)648-1907

◆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 북한 인권을 위한 부르짖음,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에 많은 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인턴(2세)과 봉사자(1세)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문의: 7월 13일(월)-16일(목), 박성남 장로 (949)697-8531

◆ Promise of Purity 자녀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성경적 성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교육입니다.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과 '미디어와 전쟁'을 주제로 PNG 이진아 대표님과 함께하는 귀한 세미나의 자리에 모든 교육부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5월 18일(월)-5월 19일(화) 저녁 7시-9시, 비전채플 대상: 교회학교 학부모 문의: 이신디 전도사 (213) 335-9049

◆ 2026 영유아유치 VBS 봉사자 모집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겨주실 어린 교사 및 중·고등부 TA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VBS 일정/문의: 6월 9일(화)-6월 12일(금), 전소연 전도사 (562)282-2991

◆ 소망부 VBS 등록 2026 소망부 VBS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여름 소망부 VBS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며 은혜 가득한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일정/등록: 7월 21일(화)-7월 24일(금), QR 코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올여름 소망부 VBS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신청: 7월 21일(화)-24일(금) 오전 9시-오후 3시, QR 코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등록 및 교사 모집 자녀의 뿌리와 미래를 함께 키우는 곳, 베델한국학교가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알 코드로 확인해주시고, 함께할 교사를 기다립니다. 재학생 조기등록 할인: 5월 9일(토)-17일(주일) 신입생 및 일반등록: 5월 18일(월)-29일(금)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황수정 집사 (949)562-5262



◆ GMMA 봉사자 모집 2026 GMMA National Missions Conference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등록 바랍니다. 주제/일시: '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6월 25일(목)-27일(토) 등록: 코드야드 부스 또는 웹사이트 (Volunteers CODE: 5MUXK46Z)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www.gmma7.org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2부 예배에 길병주 집사/길정화 성도의 아들 길가온(Vince)과 3부 예배에 염국진/조윤정 성도의 딸 염하운(Ellie)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영어고등부(BYM)를 섬기는 김하나 전도사(김두환 장로/김미화 권사의 딸)와 김기석 군의 결혼식이 5월 22일(금)에 보스턴에서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강기복 집사님(강 영 집사의 부친, 유형석 집사의 장인)께서 5월 3일(주일)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이준식 집사님(이재은 집사님의 남편)께서 5월 8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조화숙 성도님(김진환 집사의 모친, 김은선 권사의 시모)께서 5월 10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Includes details for AWANA, BYM, CIM,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ERMON SERIE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COME & SEE
MIRACLE (6)

**Jesus,
Met in Life's Deepest Darkness**
(Luke 8:40-56)

1. When was the darkest period in your life?

2. Coincidentally, the age of Jairus the synagogue leader's daughter and the number of years the woman with the discharge of blood suffered are the same number. Which number are you closer to? (vv. 42-43)

3. Although there may be ups and downs in our lives, we become equal before the greatest equalizer. How do the 12-year-old girl and the woman who was sick for 12 years become equal? (Ref: Mk 5:26, Lev 15:19)

4. Jesus knew that someone came behind Him and touched the fringe of His garment, and He looked for the woman publicly. What would be the reason?
 Not only to () the () of the woman with the discharge of blood, but also to change the () perception toward her and as a (), to restore the () that had collapsed inside her, and to restore true freedom.

5. Find the Bible verse where you can see the faith of the woman with the discharge of blood.
 Mk 5:27-28 She heard the reports about Jesus and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garment. (), "If I touch even his garments, I will be made well."

6. How did the delay in Jesus arriving at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leader, help overcome elements of unbelief? Let's lay down these elements that might also be in us and pray together.
 - 1) Situational/Spatial _____
 - 2) _____
 - 3) People's _____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Only Jesus is for Me, Still